

조선후기 거창향교의 유지와 관리

A Study on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Geochanghyanggyo Local Confucian School during the Latter part of Joseon Dynasty

송혜영*

Song, Hye-Young

(부산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 연구교수)

Abstract

During the latter part of Joseon Dynasty, Local Confucian School(Geochanghyanggyo) had served as a government school and left many official documents on the educational construction. The construction of Local Confucian School(Geochanghyanggyo), which was recorded in official documents, was diverse, and most of them were reconstructed. Construction-works recorded in an official document was drafted in two ways. One was in the same format as the accounting records and the other was written in the diary format by date. The construction cost was mainly financed by selling the land owned. Of course, with the help of the government, they could receive some of the essential timber and expenses for the construction. The management and maintenance of educational construction was entrusted by a manager called 'Chaji(次知)'. Then there were employees called 'Jeonjik(殿直)' and 'Gojik(庫直)' and they were paid for their work.

주제어 : 향교, 거창부, 유지, 관리, 공문서

Keywords : Local Confucian School(Hyanggyo), Geochang-bu, Maintenance, Management, Official document

1. 서론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에 위치하는 거창향교(居昌鄉校)는 조선시대 경상도 거창부(居昌府)의 관학(官學)으로서, 태종15년(1415) 창건되어 영조24년(1748)에 이건(移建) 후 오늘에 이른다. 조선건국 이래 성리학(性理學)의 전국적 보급을 위해 일읍일교(一邑一校) 원칙으로, 유현(儒賢)에 대한 제향(祭享)과 교화(教化)를 위한 강학(講學)을 목적으로 건립되었다.

조선후기 지방 향교는 교화를 통해 지배층의 이념을 보급하고 재지사족(在地士族)의 이해를 대변하는 향촌 기구로서 기능 유지와 관련이 깊었다. 여느 지역의 것과 다를 바 없이 거창향교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였고, 중요 행사와 관련하여 관련 문서를 후일 전거(典

據)로 삼기 위해 남겼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성전과 같은 중요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이행된 행위가 관련 문서 형태로 남아 후대에 전달되었다.

조선후기 거창향교에서 행해진 건축 활동 일체는 공문서 형태로 남아 1차 사료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은 조선후기 향교의 유지와 관리를 살필 수 있는 기본 사료가 된다.¹⁾

거창향교에서 전해지는 건축 활동과 관련한 사료로는 크게 치부록(置簿錄)과 중수록(重修錄)으로 구분되며, 중수록의 경우에 공사기간 동안 내역과 비용 그리고 날짜별로 이뤄진 각종 행위를 상세 기록하였다. 이것은 거창향교에서 발생한 여러 상황 특히 건축물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하여 경제적 상황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관련하는 건축 활동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근거를 제공하므로 건축사적 의의를 가진다.

* Corresponding Author : shy-772-@daum.net

이 논문은 2020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o.2020R1I1A1A01058515)

1) 거창향교가 소장중인 經任案 10종, 鄉案 11종, 養賢齋 관련 4종, 別補所 관련 5종 그리고 享祀와 향교운영 관련문서 등 총 49종의 공문서가 『古文書集成91-正書本-古文書集成26[居昌鄉校編]』(2008)으로 편찬되었다.

거창향교가 관학인 탓에 다수의 공문서를 보관할 수 있었고, 이행된 건축물 유지와 관리는 조선후기 여느 향교와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거창향교 소장 공문서를 바탕으로 이 시기 이행된 향교 건축의 유지와 관리에 대해 규명하려 한다. 우선 사료를 통해 향교 건축이 지역 사회에 지녔던 위상과 역할을 살펴보고, 건축 활동에 있어서 재정의 유지와 증수를 위한 공사비 조달을 살펴본다. 이러한 규명은 조선후기 지방 향교에서 행해진 지속적 존립을 위한 건축 활동의 실체를 밝히려는 의도에서 비롯한다.

2. 사료를 통해 본 건물구성과 건축과정

2-1. 사료를 통해 본 건물구성

거창향교는 태종15년(1415)에 창건하였고 대성전(大成殿)이 최초 조성되었다. 선조7년(1574)에 이르러 명륜당(明倫堂)이 세워지면서²⁾ 관학(官學)으로서 그 본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1592년 임진왜란으로 초창기 향교 건물이 모두 소실됨에 따라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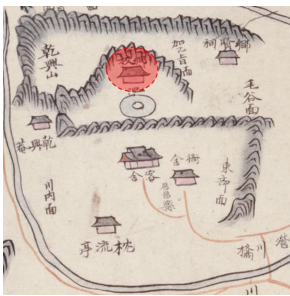


그림 1. 거창향교의 위치
[출처: 海東地圖(18C중엽)]

인조1년(1623) 대성전의 중건이 이루어졌고, 숙종42년(1716) 외대문인 춘풍루(春風樓)의 창건이 성사되었다. 당시 춘풍루는 대성전 앞에 세워졌으며 현재의 위치와는 다르다. 그리고 영조24년(1748) 부사 민심(閔諗, 재임:1746~1748)의 재임 시기에 거창향교는 현재의 위치[加乙旨面]로 이건(移建)하였다. 초창기 향교의 위치는 자세히 전해지지 않으며, 다만 1530년의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읍치의 북쪽 3리 밖에 있다’라는 기록만이 남아있다.³⁾

1748년 이 건된 오늘날의 거창향교에는 18세기 이후 작성된 사료들을 소장하고 있으며, 그 중 경임안(經任案)과 향안(鄉案)이 주를 이룬다. 향교 운영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관리와 증수 과정을 살필 수 있는 각종 공문서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⁴⁾

1748년 이 건된 오늘날의 거창향교에는 18세기 이후 작성된 사료들을 소장하고 있으며, 그 중 경임안(經任案)과 향안(鄉案)이 주를 이룬다. 향교 운영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관리와 증수 과정을 살필 수 있는 각종 공문서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⁴⁾

2) 거창향교지의 기록에 의거하면 大成殿과 明倫堂 순서로 건물이 들어섰다. 초창기에는 祭享 기능만이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新增東國輿地勝覽, 第三一 居昌, 鄉校在郡北三里

4) 居昌鄉校 所藏 鄉校凡物通記(1798), 春風樓重建錄(1809), 聖殿重修錄(1823), 東西廡追建日記(1824) 等

표 1. 조선후기 거창향교 내 건물 연혁

[출처: 경상남도의 향교건축 上(2004), 288쪽]

| 연도 | 건물 연혁 | 연도 | 건물 연혁 |
|------|------------|------|-----------|
| 1623 | 대성전·명륜당 중건 | 1716 | 춘풍루 건립 |
| 1766 | 전사청·춘풍루 중수 | 1799 | 동·서재 중건 |
| 1809 | 춘풍루 중건 | 1816 | 서재·내삼문 중수 |
| 1823 | 대성전 중수 | 1824 | 동·서무 추진 |
| 1840 | 동·서재 중수 | 1870 | 대성전 중수 |

향교가 보관 중인 공문서 중 주목되는 문건은 향교 재정과 관련한 향교범물통기(鄉校凡物通記, 1798)와 건축물의 증수를 살필 수 있는 춘풍루중건록(春風樓重建錄, 1809), 성전중수록(聖殿重修錄, 1823), 동서무추건일기(東西廡追建日記, 1824) 등이며 이것의 작성 목적은 건축 행위에 대해 전거(典據)로 삼기 위함이었다. 1823년의 대성전 중수 때 규칙이나 소용되는 물자 규모 및 조달하는 방법을 알기위해 서로가 모여 의논했을 때, 향교에 남아있는 기록은 1809년의 춘풍루중건록 뿐이라 향장로(鄉長老)들에게 수소문할 정도였다.⁵⁾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이후 공사에 대한 기록이 축적되면서 거창향교만의 사료가 전해지게 된다.

향교에 남겨진 공문서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과거의 모습을 유추하거나 혹은 과거 소실하여 그 존재를 알 수 없는 건물의 존재를 확인해 준다. 오늘날 파악된 건물의 연혁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이 정리되며, 오늘날의 모습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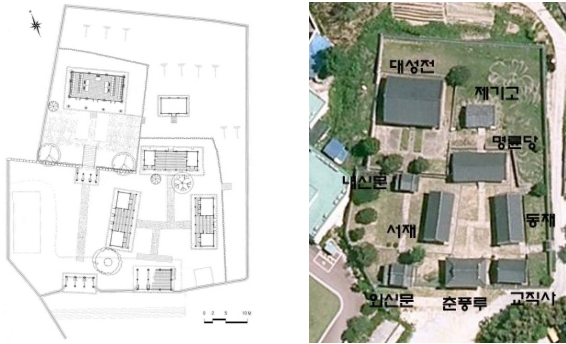
예를 들면 공문서의 기록으로 1748년 이전 이전의 거창향교 모습을 살필 수 있다. 외대문인 춘풍루 기록에 따르면 초창기 향교 위치에서 숙종42년(1716) 대성전 앞에 창건되었지만, 영조24년(1748) 현재의 위치로 이 건 했을 때 명륜당 앞에 세워졌다.⁶⁾

오늘날 거창향교는 구릉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평지와 경사지가 절충된 지형에 위치하고 있다. 다음 <그림 2>는 현 배치도 및 전경으로 서남향의 좌향(坐向)을 잡고 대성전이 서편에 그리고 명륜당이 동편에 위치하는 좌학우묘(左學右廟)의 배치이다. 또한 대성전과 동·서재, 춘풍루가 구릉지라는 지형 특성에 의해 삼단형식으로 배치됨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대성전 앞에 배치되는 동무와 서무는 현재 찾을 수 없으나, 공문서의 기록을 통해 1824년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동무와 서무가

5) 聖殿重修錄(1823), 齋任告白曰校藏無重修舊例 鄉長老或有所聞見否 僉曰無有 齋任曰東閣之所以問此者爲知其何資以用而顧無例

6) 春風樓重修記(1809), 古丙申三月日勅立于聖廟前 … 古戊辰正月日移建于明倫堂前 … 夫春風樓在昔丙申勅建伊后戊辰移建



배치도 전경 (다음지도)

그림 2. 거창향교 배치도 및 전경
[배치도 출처 : 경상남도의 향교건축 상(上)(2004), 294쪽]

없이 새로 건립하였는데, 기지(基地)가 협소하여 우선 신문(神門)을 이기한 후 전면 담장을 조금씩 물려서 동무와 서무를 지었다.⁷⁾

이처럼 과거와 현재의 거창향교 건물 구성은 일치하지 않는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원래의 모습을 상실한데서 기인한다. 남겨진 공문서 속에서 동무와 서무, 전사청 등의 존재가 드러나지만, 퇴락 후 중수와 증건의 기회를 갖지 못하면서 오늘날 그 존재를 살필 수 없다. 그나마 남겨진 공문서와 같은 사료가 남아 거창향교의 원래 모습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2-2. 사료를 통해 본 건축과정

일반적으로 건축공정은 ‘건축에 있어서 일이 진척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조선후기 작성된 공문서에서 나타나는 건축공정은 보통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회계처리를 통한 결산(決算) 형식으로 기록하는 경우와 또 다른 하나는 공사의 진행과정을 날짜별로 기록해 일록(日錄) 형식으로 나타난다. 거창향교의 경우에 춘풍루증건록(1809)은 전자의 형식으로 그리고 성전중수록(1823)과 동서무추건일기(1824)는 후자의 형식으로 기록한 특징을 갖는다.

춘풍루증건록(1809)은 진임영역인 문루 증건 과정을 기록한 공문서로 작성자는 재임(齎任)이었다.⁸⁾ 증건공사에서 재임은 가장 중요한 역할인 성조도유사(成造都宬)를 맡았고 공사가 끝난 후 공사의 전말(顛末)을 기록으로 남겼다. 춘풍루 공사에는 도합 275냥이 소요되었는데 다음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공사비용에 대한 결산 형식으로 정리되었다.

그리고 공정일정은 개기(開基), 입주(立柱), 상량(上

표 2. 춘풍루증건록에서 보이는 기록 형식

| 내역 | 금액 | 내역 | 금액 |
|-------------|--------|---------|--------|
| 舊木手 | 四十七兩五錢 | 都木手 | 一百三十兩 |
| 崔萬彩 | 六分 | 金點孫 | |
| 立柱時 | 二兩 | 上梁時 | 十兩 |
| 畢役 | 十兩 | 白襪價 | 一兩 |
| 鉅刀匠 | 八兩四錢四分 | 冶匠 | 七兩四錢八分 |
| 蓋瓦匠 | 四兩七錢六分 | 監役 | 四兩二錢 |
| 鐵物 | 十四兩三錢 | 炭 | 三兩一錢 |
| 酒肴 | 三兩 | 木手洗手 | 三兩一錢九分 |
| 冶匠二名及木手十一名 | | 四兩七錢 | |
| 蓋瓦時募軍 | 一兩九錢五分 | 願納人完文紙價 | 六錢 |
| 白木二匹草紙九卷黃肉價 | | 四兩九分 | |
| 庫直米價 | 五兩七錢 | 庫直日用 | 二兩九錢三分 |
| 仰土匠 | | 六兩 | |

樑), 단청(丹青) 순으로 진행되었다.⁹⁾ 마지막 공정은 단청(丹青)이었고 상량문(上樑文)은 당시 거창부사였던 김인순(金麟淳)이 찬(撰)하였다.¹⁰⁾

춘풍루 증건공사는 두 사람의 도목수가 관여하였고 총 공사비 275냥 중 177냥 5푼 6전이 지급되었다. 그리고 하나의 공정이 넘어갈 때마다 비용이 지급되었고, 공사 참여자에 대한 호의인 공궤(供饋)¹¹⁾와 담당 고직(庫直)에 대한 비용 또한 공사비에 포함되었다. 공사비 지출내용에서 본다면 당시 공사 장인에 대한 대우는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성전중수록(1823)과 동서무추건일기(1824)는 일록 형태로 서술되어 있다. 다음 <그림 3>과 <그림 4>는 춘풍루증건록(1809)과 성전중수록(1823)에서 나타나는 기록 형식을 보여준다. 전자는 금액과 내역 순으로 기재하였고, 후자의 경우에는 일자별 공정과정을 상황별로 서술하고 있다. 다만 공사비 지급과 관련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성전중수록(1823)이나 동서무추건일기(1824)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공사와 관련한 관계 전말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대성전 중수공사 기록인 성전중수록(1823)에서 석채례(釋菜禮)에 맞춰 도유사(都有司)의 주도로 향교 관련자들이 회합하였고 향의(鄉議)를 모아 공사에 대해 의논하였다.¹²⁾ 그리고 재임(齎

9) 춘풍루 증건공사의 경우 開基는 二月初十日, 立柱는 三月十二日, 上樑은 四月二十四日, 丹青을 끝으로 五月에 종료되었고 공사 관련 顛末 기록은 8월에 작성되었다.

10) 金麟淳(재임:1808~10)의 본관은 安東으로 淸陰 金尙憲의 후손이며 哲宗王妃 哲仁王后의 부친 永恩府院君 金汝根의 生父이다. 이러한 인연으로 현존하는 춘풍루 편액을 아들 金汝根이 썼다. 1810년 세워진 府使金公麟淳永世不忘碑가 현재 보존 중이다.

11) 供饋란 원래 ‘윗사람에게 음식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함’을 뜻한다.

7) 東西廡追建日記(1824), 齎任上香于大成殿 移建神門 基地狹隘故稍退前牆而改築焉 齎任與成造有司入告

8) 齎任은 居齋儒生의 任員으로, 춘풍루 증건 당시 李尙朝, 李宗佐, 鄭致舜 등 3인이 맡고 있었고 문서 작성자는 李尙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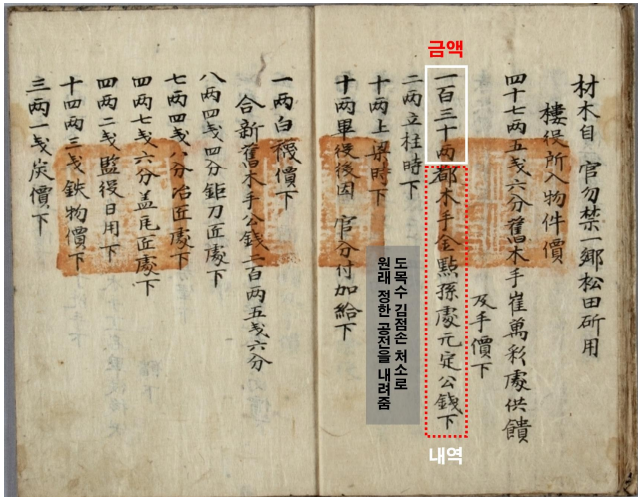


그림 3. 춘풍루중건록(1809) 기록 형식과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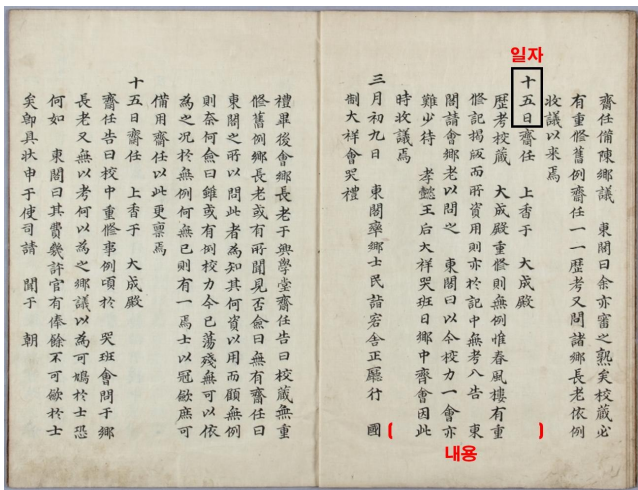


그림 4. 성전중수록(1823) 기록 형식과 내용

任)이 동각(東閣)¹³⁾을 알현해 공사에 대한 승낙을 받아야 했다.¹⁴⁾ 공사가 결정되면 시작에 앞서 이안례(移安禮)의 초헌관(初獻官)은 동각이 맡았고¹⁵⁾ 공사 진행 중에도 방문하여 관여하였다.¹⁶⁾ 그리고 공사의 끝을 알리는 환안례(還安禮)의 초헌관도 동각이 맡았다.¹⁷⁾

공사가 완료된 후 전말을 기록한 문서를 작성한 이는 향교의 장의(掌議)였고, 이것을 확인한 이는 고을의 예리(禮吏)였다.¹⁸⁾ 즉 향교에서 발생한 공사 전말은 상

12) 癸未二月初六日行釋菜禮明倫堂都有司李錫奎一掌議尹杓副掌議魚有一特席...大成殿椽朽而瓦缺已爲風雨所穿漏恐難仍過今夏
13) 공문서에서 東閣은 ‘고을수령[東軒]’을 의미한다.
14) 二月初七日齋任謁東閣請重修大成殿
15) 齋任入告曰香祝已降卜移安日是月十三日...東閣曰唯退而抄報成帖後輪告鄕中 初獻行府使洪容默...五月十三日寅時行移安禮
16) 五月十五日齋任上香于明倫堂時連日大雨東閣命撤役以待晴
17) 六月二十二日巳時行還安禮 初獻行府使洪容默
18) 鄕有司必有錄於此略之癸未八月釋菜後三日尹杓又謹書 慎宗瓚 章

세히 기록하여 후세에 남기며, 이러한 기록에 대해 고을 관리가 확인한 것이다.

이처럼 사료에 기록된 건축공정은 크게 결산 형식과 일록 형식 두 가지로 나타나며 나름의 특징을 갖는다. 전자의 경우에 비용 측면을 살필 수 있고 후자의 경우에 공사 진행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3. 거창향교에서의 건축 활동

3-1. 토지(土地)에 기반한 재정 유지

향교 재정의 근본은 향교전(鄕校田) 또는 학전이라 불리는 토지였다. 고을 규모에 따라 기본적으로 5~7결(結)을 받았는데 면세(免稅) 형태로 지급되었다. 이외에도 향교 자체 재산증식을 통해 토지를 보유하고 이것은 향교 내 건축 활동에 있어서 자금이 되었다.

거창향교는 이른바 면세위(免稅位) 5결을 보유하고 2결의 아록(衙錄) 그리고 교좌기(校坐基)와 학위기(學位基)가 있었으나 진전(陳田)이 되었다.¹⁹⁾ 토지 이외에도 교내 서책(書冊)²⁰⁾과 각종 향사(享祀) 관련 물품²¹⁾ 그리고 식목(植木)도 재산이었고²²⁾ 다수의 노비(奴婢)도 포함되었다.²³⁾

향교의 재산은 기본적으로 관(官)의 하가를 받고 처분해야 했다. 이를테면 춘풍루중건록(1809)에 따르면 건축공사에 대한 자금 조달에 있어서 원납(願納) 형태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재정의 기반인 소유 토지를 팔아야 거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춘풍루 증건은 중요한 공사였기에 관(官)의 허가 아래 토지를 팔았다.

이 무렵 공사비 조달을 위해 향교가 처분한 토지 대부분을 신분이 노(奴)인 자들이 구입했다.²⁴⁾ 예를 들면 갈지내원(袞旨池內員)의 3두락(三斗落)을 25냥에 노

基一 禮吏劉仁得

19) 鄕校凡物通記(1789), 免稅位 五結免田稅 二結衙錄 校坐基 學位基 己酉以實爲陳故官減
20) 鄕校凡物通記(1789), 書冊秩 史略六卷 雅誦二卷 通鑑十一卷 等
21) 鄕校凡物通記(1789) 祭器秩 酒樽 四坐 二坐戊午新備, 爵 三十七坐, 簠 鑄造俱蓋二十坐 甲寅新備, 燈 十坐, 滌器槽 一坐 等
22) 鄕校凡物通記(1789), 雜物秩 聖殿 明倫堂 後大松合一百七株, 西齋 後大松五十七株 眞木二十九株, 明倫堂前 香木二株 梅花二株 後園烏竹, 聖殿前 香木一株 等
23) 鄕校凡物通記(1789), 奴婢秩 婢禮眞所生婢正月, 婢三月所生婢禮蘭, 婢愛分所生婢禮春, 奴得才 乙亥年救活, 奴卜介 買得
24) 春風樓重建錄(1809), 鄕中僉讓藥官買用耳 奮價 袞旨池內員三斗落價二十五兩奴孟甲處賣 加四伊員五斗落價三十兩奴得才處賣 元洞員四斗落價十兩李奴丁丹處賣 中村員一斗落價十一兩鄕奴貴連處賣 川內衙後員二斗落價三十五兩金未邑孫處賣 古川寒泉員三斗落價二十五兩慎奴時石處賣

(奴) 맹갑(孟甲)에게 처분하였고²⁵⁾, 가사이원(加四伊員) 5두락(五斗落)을 30냥에 노(奴) 득재(得才)에게 처분하였다.²⁶⁾ 또한 원동원(元洞員)의 4두락(四斗落)도 이(李)의 노(奴) 정단(丁丹)에게 처분하였다. 즉 향교 측에서 춘풍루 공사비 조달을 위해 토지를 처분하였는데, 매입자들 대부분이 향교 소속의 노(奴) 혹은 주인의 성씨가 이(李)·정(鄭)·신(愼)인 사노(私奴)였던 것이다.

이처럼 향교 입장에서 건축 활동을 위해 재정의 기반인 토지를 처분하는 것은 관부(官府)의 용인 아래 이루어지는 고도의 행위였고, 토지 매입자들 대부분이 노(奴)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3-2. 관민(官民) 합심(合心)의 비용 협조

예로부터 거창 지역은 경상우도(慶尙右道)에 속하며 영남학파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 남명(南冥) 조식(曹植, 1501~1572)의 영향력이 상당했으며, 퇴계학파(退溪學派)와도 연계를 가졌다. 18세기에 이르면 무신란(戊申亂, 1728)의 여파로 민심이 매우 분란(紛亂)하였는데, 재지사족(在地士族)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향교 또한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였다.

읍지(邑誌)에서 나타나는 거창을 본관으로 하는 토착 사족은 신(愼)씨와 장(章)씨였고, 문화유씨·밀양변씨·연안이씨·동래정씨·하양허씨·진양형씨·김해김씨·남평문씨·성주이씨·전주이씨·과평윤씨·서산정씨·일선김씨·함중어씨·하빈이씨 등이 후일 함께 들어왔다.²⁷⁾ 그러다가 동계 정은(桐溪 鄭蘊, 1569~1641)을 배출한 초계정씨(草溪鄭氏)가 1638년 거창의 모리[某里, 북상면]로 이주한 이래 유력 가문으로 성장했다. 무신란의 발발과 함께 초계정씨를 비롯한²⁸⁾ 유력 재지사족 상당수가 반란에 연루되어 폐교(廢鄕) 됨에 따라 거창 지역에는 새로운 유력 세력이 형성되었다.²⁹⁾

25) 조선시대 토지의 공적대장인 量畵에서 員은 지명에 붙는, 지형상 별판을 뜻하며 보통 논·밭을 의미한다. 斗落은 논·밭의 넓이를 나타내는 단위로, 1두락은 '한 말의 씨를 뿌릴 수 있는 면적'이다.

26) 향교 토지 5두락을 30냥에 구입한 奴 得才는 鄕校凡物通記(1789)에서 '乙亥年救活' 즉 1755년에 향교 奴로 편입된 자였다.

27) 居昌郡邑誌[奎10882, 1899], 居昌郡邑誌 姓氏 本府劉愼章丁朱 崔來 可祚劉史曹葛辛 新增李尹鄭金許邢表柳卞魚徐朴姜全文趙 并來

28) 정은의 4대손 鄭希亮이 祖母의 遷葬을 구실로 民丁을 모집해, 李麟佐의 동생 李熊輔와 더불어 安陰의 古縣倉에서 叛軍을 일으켜 안음과 거창 두 지역을 장악했다. 정희량의 반역사건으로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했고 10년간 단절되었다가, 1738년 정은의 5대손 鄭宜瑚[夭折]의 養子로 19寸姪 鄭繼曹가 御命으로 入繼하면서 그의 후손들이 오늘날 정은의 제사를 받들고 있다.

29) 거창군청홈페이지 <https://www.geochang.go.kr> (2020.11.26.검색) 거창소개>거창이야기>거창의 인물>충의편 충신편 훈공편 무신란 倡義로 관직과 표창 받은 이들로는 愼克終·愼錫顯·愼德顯·

영조1년(1725) 이래 작성된 향교 경임안(經任案)을 살펴보면, 다수의 거창신씨와 함께 과평윤씨·밀양변씨·연안이씨·성주이씨·성산배씨 등이 나타난다. 이들 가문은 임진왜란 때 의병(義兵)으로 활약했거나,³⁰⁾ 무신란 때 관군 측에 서서 반군에 대항하여 창의(倡義)한 특정을 갖는다. 즉 1728년 무신란의 기점으로 반란에 연루된 초계정씨 등 남인(南人) 및 소론(少論) 계열 가문들은 몰락했고, 거창신씨와 성산배씨 등 관군을 도와 창의했던 가문이 두각을 나타낸 것이다.

무신란이 끝난 지 20년 후인 영조24년(1748)에 향교가 이진 되었고, 각종 건축물 중수 및 중건에 있어서 관민(官民)이 합심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공사비용을 마련했다. 조선후기 영남학파가 강력했던 경상우도의 일반적 분위기와는 달리, 거창 지역은 무신란의 여파로 집권세력인 노론(老論)에 대해 우호적이었다.

이들테면 1809년 춘풍루(春風樓) 중건공사에 있어서 공사 주창자는 향교 경임(經任)이던 이상조(李尙朝;河濱人), 이종좌(李宗佐;星州人), 정치순(鄭致舜;東萊人), 김인재(金仁載), 김석룡(金碩龍), 신영권(愼榮權;居昌人) 등이었다.³¹⁾ 그들의 청원에 대해 노론(老論) 출신 부사 김인순(金麟淳;安東人)은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

거창부사 김인순이 거창향교 공사에 대해 제공한 물력(物力)은 크게 두 가지 형식이었다. 첫 번째는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제공이었는데 원납전(願納錢) 형식이다. 관부에서 향교를 위하여 특별 원납을 통해 신역(身役)³²⁾을 면제해 주는 방식이다.

춘풍루 중건을 위해 남흥면(南興面)에 거주하는 최상복(崔福尙)과 무등곡면(無等谷面)에 거주하는 차악지(車岳只) 등 총 6명에게 15~25냥을 받아 신역을 면제해 주었다.³³⁾ 즉 관 차원에서 부사의 배려로 6명의 신역 면제를 통해 총 140냥의 공사비가 마련된 것이다.

致勤·愼光世[거창신씨]와 裴斗弼·裴斗元[성산배씨] 등이다.

30) 거창군청홈페이지 <https://www.geochang.go.kr> (2020.11.26.검색) 거창소개>거창이야기>거창의 인물>충의편 충신편 훈공편 李喜南[연안이씨], 卞淸[밀양변씨], 章獻富·章萬里[거창장씨] 등은 임진왜란 때 공훈을 세워 나라로부터 관직과 표창을 받았다.

31) 鄕校四(1791~1820) 經任案, 都有司 李尙朝 掌議 李宗佐 鄭致舜 色掌 金仁載 金碩龍 成造色掌 愼榮權

32) 조선시대 身役은 개별적으로 과약된 人丁을 대상으로 특정한 公役을 부과하는 것으로, 크게 職役과 軍役으로 나뉘는데 지역의 경우 鄕吏나 軍校 등을 말한다.

33) 春風樓重建錄(1809), 官特出願納六名限己身除役 南興面崔福尙二十五兩 無等谷面車岳只二十五兩 陰石面朴敏孫二十五兩 下加南韓國良二十五兩 赤火面丁甲範二十五兩 南興面章銀同十五兩 合錢一百四十兩

두 번째로는 건축 공사에 사용되는 재목(材木)을 공급하는 형식이다. 춘풍루 중건공사를 위해 거창 관부에서 운영하는 송전(松田)에서 생산되는 나무를 향교가 벨 수 있도록 해 주면서 공사비용을 줄여주었다.³⁴⁾ 이러한 물력 제공 형식은 지방 수령이 향교 공사비 마련 방안에 대한 하나의 실례(實例)라 할 수 있다.

1809년의 춘풍루 중건은 향교 경입들의 주창으로 시작해 거창부사의 적극적 호응에 의해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이것은 좋은 실례로 남았다. 그리하여 1823년 대성전이 노후화되어 지붕이 누수 됨에 따라 중수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춘풍루 중건공사 사례를 참조해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³⁵⁾

원칙적으로 대성전 중수는 춘풍루 공사를 본보기로 하여 진행되었다. 우선 향교 경입자가 거창부사 홍용묵(洪容默, 재임:1822~23)³⁶⁾을 방문하여 공사 허가와 물력 제공을 요청하였다.³⁷⁾ 그리고 거창부사로부터 공사 허가를 받아 향교에서는 도목수 김점손(金占孫)을 불러 대성전을 둘러보게 하여 공사비용에 대해 상정하게 했고, 관부에서는 감관(監官)과 색리(色吏)를 파견하여 벌목을 통해 목재를 마련하고 기와를 구입하는 등³⁸⁾ 합심으로 공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대성전 중수 공사는 3월 23일 거창부사의 허가 이후 5월 13일 대성전의 위패를 옮기는 이안례(移安禮)의 실시로 시작하여 6월 13일 개와 공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6월 18일 단청을 하였고 6월 22일 옮겨진 위패가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환안례(還安禮)를 끝으로 마쳤다. 관청과 향교가 힘을 합해 대성전 지붕을 중수하는 공사가 40여일 만에 종결된 것이다.

앞서 춘풍루와 대성전 공사를 재지사족 중심으로 향교 측에서 추진했다면, 1824년의 동서무(東西廡) 추진 공사는 고을 수령의 주창으로 공사가 진행된 특징을 갖는다. 대성전 공사가 끝난 직후 거창부사는 홍용묵에서 이노준(李魯俊, 재임:1823~26)³⁹⁾으로 교체되었다.

이노준은 1823년 9월 임명받아 1924년 2월 3일 향교에서 열린 대향례(大享禮)에 참석했다가 동·서무(東·西廡)가 없음을 알고 공사를 추진하였다. 거창부는 읍격(邑格)의 부침(浮沈)이 매우 심한 고을이었는데, 조선 전기 거창군이었던가 현으로 강등되고, 다시 부가 되었다가 현으로 강등되는 등⁴⁰⁾ 다른 지역에 비해 균등하게 유지되지 않았다.

거창 지역의 읍격 변화는 향교의 지위와 연관되어 동조하였다.⁴¹⁾ 1824년의 동서무 추진 공사는 거창부사 이노준이 대성전에서 사채(舍菜)⁴²⁾를 지낸 후 ‘양무(兩廡)가 없음은 부학(府學)이라 칭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⁴³⁾ 시작되었다. 대향례(大享禮) 전날 향교에 머무르던 이노준은 명륜당에 제생(諸生)을 불러 ‘부로 승격된 지 기 십년이 넘었는데 부제(府制)를 갖추지 못하고, 대성전이 현(縣)의 옛 양무를 쫓아 홀로 서 있는데 지금은 능히 세울 수 있다’ 하여⁴⁴⁾ 추진(追建) 공사를 추진한 것이다.

이노준은 공사 추진을 위해 향회(鄉會)를 소집하게 하여 중론을 모으게 한 후, 예리(禮吏)⁴⁵⁾를 전달자로 삼아 공사를 추진하게 했고 대성전 중수공사를 경험했던 감관과 색리를 차출해 사업을 진행시켰다.⁴⁶⁾

3월 2일에 개기(開基) 하였고 3월 24일에 입주상량(立柱上樑)을 예정하였다. 일이 시작되자 도목수 박연종(朴連宗)이 여러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일을 맡았

39) 李魯俊의 본관은 德水로 澤堂 李植의 8대손이자 畏齋 李端夏의 7대손으로 生員試에 급제하여 蔭敘로 관직에 진출하였다.

40) 조선시대 거창 지역의 행정 변천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연대 | 명칭 | 연대 | 명칭 | 연대 | 명칭 |
|------|-----|------|---------|------|-----|
| 1414 | 濟昌縣 | 1432 | 居昌縣 | 1495 | 居昌郡 |
| 1506 | 居昌縣 | 1658 | 廢縣(安陰縣) | 1660 | 居昌縣 |
| 1728 | 居昌府 | 1736 | 居昌縣 | 1739 | 居昌府 |
| 1788 | 居昌縣 | 1799 | 居昌府 | 1895 | 居昌郡 |

41) 성종15년(1484) 諸邑鄕校給田節目에 의해 大典續錄 戶典 學田條에서 성군관 및 州·府·郡·縣 등에 400·40·15·10結 등 학전이 차등으로 지급되었다. 읍격에 따라 제정 상태도 차이가 있었다.

42) 舍菜는 釋菜라 부르기도 하는데 소나 양의 희생을 생략하고 채소 따위로 지내는 간소한 석전(釋奠)을 의미한다.

43) 東西廡追建日記(1824), 甲申春二月上丁知府德水李侯舍菜于大成殿念兩廡未建無以稱府學也

44) 東西廡追建日記(1824), 大享禮前夕東閣齋宿于明倫堂招諸生語之曰我東聖廟之制視邑秩隆務本邑之由縣陞府今幾十年凡百俱從府制而獨於聖廟因縣之舊兩廡至今未克建豈徒守土者責襟珮與有愧焉

45) 禮吏는 각 지방 관아에서 禮房에 속한 胥吏를 이른다.

46) 東西廡追建日記(1824), 二月二十二日丙辰鄕會于明倫堂 東閣使禮吏傳語于會中曰薦望成造任員卜日以進僉曰事有所待得之爲有財時不可失遂依例薦出成造有司尹楷魚錫洛看役校生金鳳儀全昌祿成望稟報焉於是 東閣差監官李亨純色吏愼文五蓋二人見稱於去年聖殿重修時故也

34) 春風樓重建錄(1809), 材木自官勿禁一鄕松田研用

35) 聖殿重修錄(1823), 癸未二月初六日行釋菜禮 大成殿而創久而圯榱桷日朽殆風滲而雨漏於禮可亟改也 … 歷考校藏大成殿重修則無例惟春風樓有重修記揭版而所資用則亦於記中無考入告東閣請會鄕老以問之

36) 洪容默의 본관은 南陽으로 병자호란 때 斥和派 三學士인 忠正公 洪翼漢의 7대손이며 生員試에 급제하고 蔭敘로 관직에 진출했다.

37) 聖殿重修錄(1823), 二月初七日齋任謁東閣請重修大成殿東閣曰余亦審之熟矣 校藏必有重修舊例齋任一一歷考又問諸鄕長老依例收議以來焉

38) 聖殿重修錄(1823), 二月二十三日 大成殿奉後命都木手金占孫檢殿宇滲漏處計材瓦所入而錄其數差監官李亨純色吏愼文五伐木于山買瓦于村使前期輸納于校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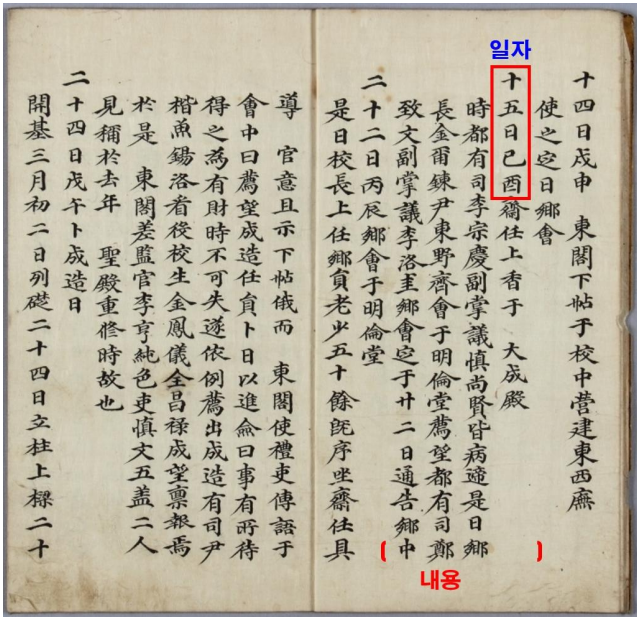


그림 5. 동서무추건일기(1824)에서 보이는 기록 형식이다.⁴⁷⁾ 실질적인 입주상량은 3월 25일 이루어졌고, 상량문은 진사(進士) 이상모(李尙模)가 작성했다.⁴⁸⁾ 5월 6일에 단축(丹腹)을 하였으며 동각이 도착하여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동무, 서무, 신문 순으로 공사를 마치고 대가를 지불하였다.⁴⁹⁾

그리고 동서무 공사와 별도로 대성전 신문(神門)의 경우에 4월 15일 일단의 공사를 마쳤는데 기지가 협소하여 앞 담장을 물리고 개축하였다.⁵⁰⁾ 이후 동서무와 함께 단청을 하였고 300여 금(金)이 지급되었다.

낙성(落成) 후 거창부사는 도목수 이하 여러 관계자에게 술을 내렸고, 공사비용과 관계자 상급(賞給)까지 합해 총합 150여 민(緡)⁵¹⁾을 소요하였다. 다음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동서무추건일기가 일록(日錄) 형태로 작성된 까닭에, 공사의 공정이나 관련 내용은 살필 수 있지만 공사비에 대한 상세 내역은 알 수 없다.

1824년의 공사를 마지막으로 거창향교에서 더 이상

중수록이나 중건록 등 기록물을 남길만한 건축 활동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완문(完文)⁵²⁾이 남아있어 향후에 전개된 건축 변화를 유추할 수 있다.

거창향교에는 1800년대 관부에서 발급한 6건의 완문이 남아 있는데,⁵³⁾ 주로 향교에서 소비되는 제기(祭器)와 의복(衣服), 종이 등 각종 물품을 고을 주민들이 재화를 내어 고을을 위해 헌납하였으므로 이를 표창하기 위해 완문을 작성해 발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러 완문 중 건축사적 견지에서 주목되는 기록은 고종29년(1892)에 발급된 것으로, 동부죽전리(東部竹田里)에 거주하던 서재규(徐在圭)·서재혁(徐在赫) 형제가 퇴락한 향교 서무(西廡)를 중수할 비용 200냥을 관출(辦出) 함에 따라 발급되었다.⁵⁴⁾ 죽전리 서씨 형제가 향교 사업을 위해 내놓은 비용은 이른바 원납전이었기에 대한 대가는 자자손손 신역(身役)과 연호잡역(烟戶雜役)을 면해주는 조건이었다. 완문은 두 권으로 작성되어 하나는 당사자에게, 또 하나는 향교가 가지면서⁵⁵⁾ 그 내용을 서로가 공증하려 했다.

1838년 이래 작성된 6건의 완문을 통해 향교가 처한 상황 두 가지를 유추할 수 있다. 하나는 19세기 말 향교가 더 이상 자력으로 건축물 유지뿐만 아니라 운영비품조차 조달이 어려워졌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해당 관부조차도 관내 향교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 각종 물력을 동원할 여력조차 없는 형편이 되었다는 점이다. 향교가 관부의 동의로 완문을 작성하여 비용의 관출을 통해 간신히 유지 및 관리가 가능했다는 점은 19세기 후반 지방 사회의 경제적 피폐를 가늠하게 한다.

이처럼 조선후기 향교의 유지와 관리는 관민(官民) 합심으로 이뤄졌음을 사례를 통해 살필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향촌사회는 피폐해졌고 향교는 자력으로 유지와 관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관부가 발행한 완문의 기록을 통해 가늠할 수 있다.

47) 東西廡追建日記(1824), 開基三月初二日列礎二十四日立柱上樑二十五日也 … 初四日丁卯始役 都木手朴連宗率衆工各執其事自是

48) 東西廡追建日記(1824), 二十五日戊子午時立柱上樑 上樑文進士李尙模所製也

49) 東西廡追建日記(1824), 初六日戊戌加丹腹 東閣至周觀 … 次東廡次西廡次神門至十三日乙巳畢工依願給價 已上 官下合三百餘金

50) 東西廡追建日記(1824), 四月十五日戊申 齋任上香于 大成殿移建神門基地狹隘故稍退前牆而改築焉

51) 緡은 일반적으로 '돈페미'를 뜻 하는데 동전인 상평통보를 엮은 것을 이른다. 法貨인 常平通寶 1개가 1문[문, 님]이며 10개면 1전, 100개가 1냥이 되며, 기존 연구에 의하면 '4냥이 쌀 1석'과 대비된다. 조선왕조실록의 1783년 기록에 '쌀 3斗 대신에 돈 1페미[緡]를 받았다[當納米條 以三斗代一緡錢代奉]'라는 기록으로 보아 '1석=10두'이므로 1냥에는 못 미쳤다.

52) 官府에서 향교·서원·結社·村·개인 등에 발급한 문서로 어떠한 사실의 확인 또는 권리나 특권의 인정을 위한 확인서, 인정서의 성격을 가진다. 일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개는 당사자 또는 관계단체의 진정 또는 청원에 의하여 발급하게 된다.

53) 1838년, 1860년, 1865년, 1879년, 1884년, 1892년에 작성된 완문이 남아 있는데 청원자는 鄉校會中이며 발급자는 居昌府使이다.

54) 完文(1892), 右完文事鄉校西廡既在年久壁瓦顏缺棟樑朽傷幾至風侵雨漏之境 須非尊賢崇道之意一鄉僉議欲將重修而未遂其意幸承我李侯撫莅茲鄉堪歎學校之將頽且惜資用之不足周旋未辦之祭 東部竹田里居徐在圭在赫兄弟慕先聖之遺化效我侯之明教同誠合力辦出錢文貳百兩以備重修所入之資如

55) 完文(1892), 此之人表善揚名以爲吾黨之人可也故茲以成完文二卷一置校中一置其家而子子孫孫若有兵訓各廳番布之名該面面任戶首及橋樑烟戶雜役永永勿侵之意如 是成完文事 壬辰四月日鄉校會中

4. 거창향교에서의 건축물 관리

4-1. 차지(次知)에 의한 건물 관리

여러 선행연구에 의하면 향교 건축의 기본 구성은 제향공간인 대성전과 동·서무, 강학공간인 명륜당과 동·서재 그리고 지형과 여건에 따라 내·외대문이나 신문, 전사청, 경판고, 고직사 등의 배치로 이뤄진다. 거창향교의 경우에는 앞선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의 건물 배치를 이루고 있으며, 동·서무와 같은 건물은 기록을 통해 과거에 그 존재가 확인되나 유지되지 못해 현재 전해지지 않는 것도 있다.

18세기 말 거창향교 일곽의 관리는 차지(次知)⁵⁶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이를테면 대성전을 관리하는 자는 전직차지(殿直次知)로 불리었고, 명륜당을 관리하는 자는 고직차지(庫直次知)라 하였다.⁵⁷ 그러나 차지는 실질적인 관리자라기 보다는 담당별로 여러 피고용인을 관장하는 위치로 여겨진다.

다음 <표 3>은 향교범물통기(1789)에 기록된 차지와 피고용인의 명칭을 정리한 것이다. 차지 명칭을 보면 각각이 담당하는 건물 및 그 공간을 살필 수 있다. 예를 들면 대성전과 명륜당 경우에 건물 이외에도 경계를 이루는 와장(瓦牆)까지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문내전직차지의 경우에 신문과 동·서무 일곽을 관장하는 차지로 보이며, 입덕문내고직차지의 경우 입덕문과 내고를 관장하는 차지라 할 수 있다.⁵⁸ 허문내치도수노차지의 경우에는 교내 길 닦는 치도(治道)까지 담당할 수노(首奴)의 신분까지 관장한 듯하다. 건물 관리 이외에도 향사(享祀) 때 사용되는 반상(盤床)과 반채(盤菜)를 담당하는 차지도 있었다. 즉 차지는 경내 구역을 나누어 담당하는 피고용인을 관장하는 관리자라 할 수 있다.

거창향교에는 집사교생(執事校生) 24명과 번유교생(番儒校生) 50명이⁵⁹ 동·서재를 중심으로 머물렀으며

56) 次知란 원래 ‘왕족들의 각 宮房의 일을 맡는 사람’을 뜻하나, 의미가 확장되면서 관리 책임자 혹은 직을 맡은 하인 등을 지칭하는 단어가 되었다.

57) 鄉校凡物通記(1789), 雜物秩 聖殿牆瓦殿直次知 明倫堂牆瓦庫直次知 神門內殿直次知 入德門內庫直次知 虛門內治道首奴次知

58) 入德門은 현재 그 위치를 찾을 수 없는데 아마도 외대문의 2층 누각을 春風樓라 하고, 1층 대문을 입덕문으로 불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테면 彦陽鄉校의 외대문 명칭이 입덕문이다.

59) 향교는 기본적으로 제향기능이 중요했으므로 가중되는 祭需의 조달을 위하여 軍役을 면제해 주는 執事校生의 수를 유지하였다. 番儒校生은 향교에서 宿直이나 日直의 당번이 되는 유생을 이른다.

표 3. 향교범물통기에서 차지 및 피고용인 명칭

| | | | |
|------|----------------|--------|----|
| 차지명칭 | 聖殿牆瓦殿直次知 | 피고용인명칭 | 奴保 |
| | 明倫堂牆瓦庫直次知 | | 書記 |
| | 神門內殿直次知 | | 小童 |
| | 入德門內庫直次知 | | 首奴 |
| | 虛門內治道首奴次知 | | 殿直 |
| | 校內雜雜應役芻旨上下有司次知 | | 庫直 |
| | 享祀時盤床看儉書記次知 | | 食母 |
| | 享祀時盤菜校底居人當次知 | | 使喚 |
| | 十二朔朔紙一束式寺主人次知 | | 驅從 |

로 이들을 도울 피고용인이 배치되었다. 기본적으로 교생은 군역(軍役)을 면제받기 때문에 이들의 군역을 대신하는 노보(奴保)⁶⁰로서 70명이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이들 향교 교생들을 돕기 위해 소동(小童) 5명과 서기(書記) 2명 그리고 식모(食母) 3구, 사환(使喚) 7구, 구종(驅從) 3구가 배정되었으며 이들의 신분은 각기 달랐다.⁶¹

이처럼 거창향교 내 건물 구성별로 차지라 불리는 관리자가 맡았고 대략 경계선상을 두고 일곽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임무에 따라 각종 차지 명칭이 확인되며 운영상 차지 아래 다양한 명칭의 피고용인도 존재했다. 피고용인의 경우에는 각기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향교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나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4-2. 치부(置簿)에 나타난 유지 관리

오늘날 거창향교 소장 문서 중 치부(置簿)⁶²는 운영과 유지 측면에 대해 살필 수 있는 1차 사료라 할 수 있다. 사료적 측면에서 치부의 내용 다수가 재정의 기반이 되는 토지 관련 내용이나, 내용에 있어서 회계장부에서 적용되는 질(秩)⁶³ 형식으로 기록이 남아있어 유지 관리 측면을 살필 수 있다.

향교의 재산 정도를 파악하는 회계장부인 향교범물통기(鄉校凡物通記)에는 건축물의 운영과 유지, 관리 측면에서 지출된 모든 비용을 보여준다. 여느 회계장부와 마찬가지로 향교 소유 물품과 토지에 대한 내용

60) 奴保는 원래 奴가 軍保[正兵을 돕기 위하여 두는 助丁]로서 바치는 배를 의미하며 春秋로 各八歲式 부담했다.

61) 雜物秩에 기재된 奴保七十名 小童五名 書記二名은 名으로 표기되므로 신분상으로 良人이며, 奴婢秩에 기재된 首奴 殿直 庫直 食母 三 使喚七 驅從三은 口이므로 신분상 賤人이다.

62) 置簿는 일반적으로 金錢·物品의 出納을 기록한 문서로 置簿冊을 뜻한다.

63) 조선시대 회계장부에 있어서 吏讀 문자가 등장하며 대표적으로 秩과 作이다. 벼를 다듬어 쌓아놓은 형상을 본뜬 ‘秩’자는 물품 이름 뒤에 붙이는 글자로 회계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물품을 의인화하는 기법에서 출발한다. 作은 이두 발음으로 ‘질’로 읽는다.

표 4. 향교범물통기에서 사환사경질 내용

| 피고용인 명칭 | 지급 연봉 |
|---------|-------------------|
| 殿直 | 貰六斗落只 |
| 庫直 | 貰二斗落只 |
| 七使喚 | 貰一石十六斗落只 |
| 三食母 | 貰一石三斗落只又田十七斗落只 |
| 三驅從 | 貰十六斗落只 |
| 局內山直 | 貰三斗落只 |
| 主崗山直 | 貰十斗落只 |
| 首奴 | 貰四斗落只 |
| 西齋庫直 | 貰四斗落只 |
| 合 | 畚五石四斗落只 田十七斗落只 |

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이중 사환사경질(使喚私耕秩)을 통해 피고용인의 비용지출을 살필 수 있다.

앞서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는 차지와 피고용인에 의해 이루어졌고 맡은 직책에 따라 각기 신분이 달랐다. 차지를 맡은 이에 대한 비용 소요가 치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아마도 관리자 입장에서 명예직으로 운영되었음을 추론 가능하다. 반면에 피고용인에 대해서는 지출이 발생하였으므로 신분이 낮아도 직책에 대한 노임을 지불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사환사경질의 의미를 풀이한다면 ‘사환에게 지급하는 새경’에 대한 회계 장부를 뜻하며,⁶⁴⁾ 이 장부에 기재된 직책이 새경을 받는 피고용인임을 의미한다. 다음 <표 4>는 장부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새경은 주로 토지인 전·답으로 지급하며 면적 단위는 마지기[斗落只]⁶⁵⁾로 표시하였다.

피고용인의 명칭을 살펴보면 전직(殿直)과 고직(庫直), 수노(首奴) 등이 있어 이들은 관리자인 차지 밑에서 고용된 인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교생들을 돌보는 식모(食母) 3구, 사환(使喚) 7구, 구중(驅從) 3구도 포함되며⁶⁶⁾ 국내산직(局內山直), 주장산직(主崗山直), 서재고직(西齋庫直)과 같은 피고용인도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용인이 맡은 직책에 따라 노임의 차이를 두었다. 이를테면 주장산직이 10마지기, 전직이 6마지기를 받았고 고직은 2마지기, 국내산직은 3마지기 정도였다. 직책에 대한 상세 내역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깊은 추

론은 어렵고 명륜당을 맡은 고직보다 대성전을 맡은 전직이 높은 노임을 받았다. 이것은 건물이 차지하는 공간의 위계에 따라 직책도 달랐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생들을 주로 맡았던 사환 7구, 식모 3구, 구중 3구는 신분상 천인이었으나 논밭을 새경으로 지급 받았으며, 그 지급 내역을 견주어 보면 다른 직책보다 후대(厚待) 받았음을 살필 수 있다.⁶⁷⁾

사환사경질이 의미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직과 고직 등 피고용인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응당한 노임을 새경 형식으로 받았고 둘째, 피고용인의 직책 경중에 따라서 새경의 가치도 달랐다. 즉 조선후기 향교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노동력의 고용은 반드시 인건비와 같은 재정 투입이 요구되었음을 이것을 통해 살필 수 있다.

향교의 유지와 관리에 있어서 이른바 인건비 지급뿐만 아니라 건물별로 소요되는 각종 물품의 구비도 필요했다. 향교에 있어서 제향기능이 중시되었기 때문에 사기(沙器)와 옹기(瓮器) 같은 각종 물품의 소비가 상당했다. 사기점인(沙器店人)이나 옹기점인(甕器店人)에게 1년에 한 번 상납 받았는데,⁶⁸⁾ 1795년 작성된 향교 서책제기재복(鄕校書冊祭器齋服)에는 남흥사기점(南興沙器店)과 무등곡옹점(無等谷甕店)에서 거창향교로 상납한 기록이 남아있다.⁶⁹⁾

그리고 동·서재(東西齋)에서 소요되는 창호지(窓戶紙) 납입 또한 기거 공간의 유지 및 관리와 연관된다. 동서재의 창호지는 대장(大壯) 6장(丈)과 도배백지(塗排白紙) 3속(束), 백지(白紙) 3속(束)이 소비되었는데 대장과 도배백지는 춘추(春秋)로 용계사(龍溪寺)에서 그리고 백지는 견암사(見岩寺)에서 상납 받았다.⁷⁰⁾ 이것에 대한 비용 지출 내역이 없으므로 계약에 따른 납품이라기보다는 진상 형식의 상납으로 추정된다.

거창향교에 종이를 진상했던 용계사와 견암사는 거

64) 使喚은 일반적으로 관청이나 개인 집에 고용되어 심부름하는 사람을 뜻하며, 私耕은 한 해 동안 일한 대가로 머슴에게 주는 돈이나 현물을 뜻한다. 연봉제 형태의 옛 품삯 제도로서 ‘새경’은 원래 ‘사경(私耕)’의 변한 말이다.

65) 斗落只는 우리말로 ‘마지기’의 이두 문자로 斗落에서 파생했다.

66) 식모는 관아에 속한 食婢로 부엌일을 맡아 하며, 사환은 잔심부름을 시키기 위해 고용한 이를 뜻하며 구중은 일반적으로 벼슬아치를 모시고 따라다니던 하인을 뜻한다.

67) 회계장부에서 畚 20마지기가 1石[米 1石=10斗]으로 계산되므로, 주장산직의 10마지기는 쌀 5斗에 해당된다. 사환은 5.1마지기[2.6斗], 식모는 7.6마지기[3.8斗], 구중은 5.3마지기[2.7斗] 정도의 새경을 받았다. 쌀 1석은 상평통보 4냥에 대비된다.

68) 鄕校凡物通記(1789)에 따르면 沙器 형태인 沙鉢十立 大接十立 中鉢十立 甫兒十立 宗子十立 接匙三十立 등은 沙器店人一年一次所納라 하였고, 瓮器 형태인 東兒一坐 土鼎一坐 火爐二坐 水哨灌二坐 洗手所羅二坐 大瓶一坐 菜丹之二坐 등은 瓮器店人一年一次所納했다.

69) 鄕校書冊祭器齋服(1795), 大甕壹坐 小甕壹坐 大甕壹坐 小甕壹坐 大汝邑於只壹坐 小汝邑於只壹坐 同會貳坐 洗手器參坐 水招灌參坐 大爐參坐 沙耳貳坐 大壹壹坐 小壹壹坐 沙鼎貳坐 右無等谷甕店所納 沙器拾 伍床器 右南興沙器店所納

70) 鄕校凡物通記(1789), 東西齋窓戶紙大壯六丈 塗排白紙三束 龍溪寺所納 春秋等 白紙三束 見岩寺所納

창부 관할 내에 위치했다. 용계사의 경우에 16세기 사료에서도 그 존재는 드러나지 않으며 금광산에 소재하다가 1899년 이전에 폐사되어 현존하지 않는다.⁷¹⁾

이처럼 거창향교의 건축물 유지와 관리는 그에 합당한 재정 지출을 요구했다. 차지와 함께 그 나름의 역할을 담당한 피고용인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직책에 따라 이른바 새경을 지급받았다. 또한 향교 운영과 유지에 필요한 창호지와 같은 물품도 진상을 받았는데 그 대상은 용계사와 견암사와 같은 거창부 관할 내 사찰이었다.

4. 결 론

본 연구는 조선후기 지역 향교에 소장된 공문서를 통해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에 대한 그 특성을 살피려는 의도에서 비롯하였고, 거창향교의 사례를 통해 건축 활동과 건축물 관리 측면을 고찰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후기 거창향교는 관학으로 향교 운영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관리와 중수 과정을 살필 수 있는 각종 공문서를 작성했고, 그 목적은 건축 행위 일체에 대해 후일 전거(典據)로 삼기 위함이었다. 건축 공정 기록과 관련하여 회계처리를 통한 결산(決算) 형식과 날짜별로 기록하는 일록(日錄) 형식 두 가지로 나타나며, 전자의 경우 비용 측면을 살필 수 있었고 후자의 경우 공사 진행 과정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향교 재정의 근본은 토지였고, 건축 활동을 위해 재정 기반인 토지를 처분하는 것은 관부(官府)의 용인 아래 이루어지는 고도의 행위였다. 거창향교의 공사에서 관부는 신역(身役)의 면제를 가능하게 하는 원납전(願納錢) 형식과 공사에 소요되는 재목(材木)을 공급하는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셋째, 19세기 말 거창향교는 자력으로 건축물 유지뿐만 아니라 운영비품조차 조달이 어려워졌는데 그것은 완문(完文)의 존재로 파악된다. 1838~1892년 사이 작성된 6건의 완문을 통해 거창향교가 각종 물력을 동원할 여력이 없어 관부의 동의로 완문을 작성하였고 비용 관출을 통해 유지 및 관리가 가능했다는 사실이 이 무렵 지방 사회의 경제적 피폐를 가늠하게 한다.

넷째, 18세기 말 거창향교 일곽의 관리는 차지(次知)를 중심으로 이뤄졌고 담당별로 여러 피고용인을 관장하였다. 맡겨진 구역을 관리하는 각종 차지 명칭이 확인되며, 운영상 차지 아래에 다양한 명칭의 피고용인도 존재했다. 피고용인의 경우에는 각기 다른 신분을 가지며, 향교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나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섯째, 거창향교의 회계장부를 통해 건축물의 운영과 유지, 관리 측면에서 지출된 관련 비용을 살필 수 있다. 사환사경질의 경우에 전직(殿直)과 고직(庫直) 등 피고용인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응당한 노임을 새경 형식으로 받았고, 직책 경중에 따라 새경의 가치도 달랐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무렵 향교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노동력의 고용에는 반드시 인건비와 같은 재정 투입이 요구되었음을 살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오랜 기간 거창향교 소장 사료 속에 묻혀 있던 공문서를 통해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하여 조선후기 이뤄진 건축 활동의 진행과 과정 그리고 지방 사회와의 관계성을 이해하고, 동시에 치부록과 중건록 그리고 회계기록 등을 통해 향교에서 이뤄진 다양한 건축 활동의 제반 사항에 대한 규명과 그 의미를 밝혔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둔다.

참고문헌

1.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집성91 - 정서본 - 고문서집성26 [거창향교편]』, 2008
2. 윤희면, 「조선후기 향교연구」, 일조각, 1990
3. 정진영,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1998
4.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상남도의 향교건축 上, 2004
5.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jg.snu.ac.kr>)
新增東國輿地勝覽[奎貴1932], 居昌郡邑誌[奎10882], 海東地圖
6.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7.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8. 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aks.ac.kr>)
9.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10.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11. 국토정보플랫폼 (map.ngii.go.kr)
12. 거창군청홈페이지 (<https://www.geochang.go.kr>)

접수(2021. 01. 15)

수정(1차: 2021. 03. 11)

게재확정(2021. 03. 21)

71) 新增東國輿地勝覽[奎貴1932, 1530], 佛宇 見巖寺 在牛頭山巖壑清勝 洪武乙亥 我太祖爲前王朝王氏施田百五十結 每年二月十月降內香行水陸齋 居昌郡邑誌[奎10882, 1899], 佛宇 見巖寺 在牛頭山巖壑清勝 龍溪寺在金光山今無